에드가 멀티골·김대원 쐐기골…대구 'ACL' F조 선두로

대구가 '축구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K리그 시민구단 대구FC와 '중국 거함' 광저우 에버그란데가 격돌한 12일 포레스트아레나는 평일 저녁 경기임에도 매진됐고, 대구는 ACL 2연승을 질주했다. 두 골을 몰아친 에드가(오른쪽)와 팀 동료 세징야가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대구가 미쳤다…'구단 몸값 10배' 광저우 격파

〈광저우 930억-대구 88억〉

'슈퍼리그 큰손' 광저우 3-1 제압 파란
파울리뉴 연봉 180억…대구 한 해 예산
평일 저녁 만원 관중…대구 '축구의 봄'

아시아 무대에서 성사된 K리그1 시민구단 대구FC와 중국 슈퍼리그 '전통의 큰 손' 광저우 에버그란데의 승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됐다.

전 세계 축구시장 전문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에 따르면 광저우의 시장가치는 7280만 유로(약 930억 원), 대구는 688만 유로(약 87억7000만 원)다. 특히 광저우가 FC바르셀로나(스페인)에서 데려온 브라질 국가대표 공격수 파울리뉴의 가치는 3800만 유로(약 484억 원), 연봉은 1400만 유로(약 178억 원)다. 이는 대구의 한 해 예산에 달한다. 올 시즌도 약 180억 원을 시즌 예산으로 편성했으니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클럽 역사도 광저우가 앞선다. 2011년부터 7년 연속 슈퍼리그 정상에 선 광저우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도 2차례(2013, 2015년) 석권했다. 대구는 지난해 FA컵우승이 창단 첫 트로피로, ACL에 도전장을 내민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그런데 몸값과 실력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공은 둥글다'는 말처럼 축구는 약체가 강호의 덜미를 낚아채는 드라마가 자주 연출되는 이변의 스포츠다. 올 겨울 이적시장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행보를 보이지 않은 대구를 향해 많은 축구인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을 때, 대구는 "역대 가장 강력한 팀을 구성했다"고 자신했다.

자신감의 원천은 분명했다. 조직력이다. 대구는 이름값과 돈이 아닌, 팀으로 무장했다.

대구는 12일 포레스트아레나(DGB대구은행파크 애칭)에서 열린 광저우와의 2019 ACL 조별리그 F조 홈 2차전에서 3-1 쾌승을 거두며 다시 한 번 저력을 입증했다. 아시아 거함을 맞이해 90분 내내 물러서지 않는 플레이로 펼친 대구는 짜임새 있는 공격진을 앞세워 귀한 승점 3을 추가했다. ACL 안방 첫 승과 함께 일군 대회 2연승.

브라질 골게터 에드가와 김대원이 투 톱에 서고, 세징야가 뒤를 받친 대구는 전반 24분 첫 골을 터트리며 흐름을 잡았다. 김대원이 띄운 볼을 절묘한 슛으로 선제골로 연결한 에드가는 전반 43분 역습 상황에서 세징야의 도움으로 다시 골 망을 흔들었다.

브라질 공격콤비의 궁합은 파비오 칸나바로 광저우 감독이 가장 우려한 부분이다. "대구는 외국인 공격수들의 조합이 좋다. 세트피스를 비롯한 대구의 강점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했다"고 했지만 제대로 불붙은 화력을 온전히 감당하기는 어려웠다.

대구는 후반 8분 탈리스카에게 실점을 허용해 위기를 맞이했으나 잘 버텨냈고 다시 한 번 찾아온 찬스를 놓치지 않았다. 후반 36분 츠바사의 패스를 잡은 김대원이 과감한 슛으로 쐐기 골을 터트렸다.

K리그1 생존을 넘어 ACL 8강 이상을 바라보는 대구의 시즌 초반 행보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시즌 개막 이후 4경기 무패다. K리그1 '절대 1강' 전북 현대 원정에서 1-1로 비겼고 멜버른 빅토리(호주)와 ACL 원정 1차전을 3-1 승리로 장식했다.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정규리그 홈 개막전(2라운드)에서 2-0으로 이긴 대구는 광저우까지 낚아채며 단숨에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분위기도 뜨겁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연고한 전통의 '야구도시'가 축구 열기로 뒤덮였다. 올 1월 개장한 1만2000석 규모로 지어진 축구전용경기장의 지분이 상당하다. 새로운 안방 개장식을 겸한 주말 제주전에 이어 평일 저녁 펼쳐진 광저우전까지 연속 매진되며 바야흐로 대구에 '축구의 봄'이 도래했음을 알렸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U-23 김학범호 악조건과의 전쟁

1 열악한 프놈펜 스타디움
2 고온다습한 기후와 매연
3 숙소 침대도 딱딱해 불편

11일 경기도 파주 NFC에 소집된 김학범 감독의 23세 이하(U-23) 대표팀은 22일부터 26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릴 2020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예선에 나선다. 내년 초 태국 방콕에서 개최될 챔피언십 본선은 2020도쿄올림픽 아시아 지역예선을 겸해 대한축구협회가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캄보디아, 호주, 대만과 경쟁할 한국은 1위를 해야 대회 본선에 자동 진출한다. 2위가 되면 전체 11개조 상위 4개국만 본선 티켓을 얻는다. 그런데 걱정이 있다. 최악의 환경이다. 특히 페타이어 가루를 뿌린 인조잔디로 조성된 프놈펜 스타디움이 불안하다. 이민성 U-23 대표팀 코치가 현지를 답사한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았다. 현지 미국계 대학에 마련된 훈련장이 메인 그라운드보다 상태가 나을 정도다.

또 캄보디아와 2차전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 킥오프 시간(현지 기준)이 오후 3시30분으로 잡혀 고온다습한 기후를 피하기 어렵다. 동남아시아 특유의 오토바이 행렬이 뿜어내는 매연역시 심하다. 이 코치는 "섭씨 40도에 달할 1, 3차전에 비해 2차전 시간대는 기온이 조금 내려간다. 온탕과 냉탕, 다시 온탕을 오간다. 공기도 좋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다.

악조건 속에서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데 숙소마저 불편하다. 특히 침대 매트리스가 딱딱해 U-23 대표팀은 협회에 추가 담요를 요청하며 대책을 강구 중이다. U-23 대표팀 관계자는 "유난히 외적 변수가 많다. 만반의 대비로 선수단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장현 기자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휴대용 허리가 불편해 고생하시는 분~ 名作名品

▶허리건강 비밀은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다
▶며칠 착용해보니 그것 참 좋구나!

몸이 차가워지면 몸과 마음 그리고 매사의 의욕이 사라지는데 **몸이 차가워지면서 생기는 현상을 바로잡아 주는데 필요한 것이 찜질 요법**이며 찜질요법은 옛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요법 중의 하나이며 현대의학에서도 많은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입증되는 추세이다.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흔히 겪는 것들은 우리 몸에 냉기가 쌓이면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많다. 우리 조상들은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으면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고 아랫목에서 한숨 푹 자고나면 온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알았는데 바로 그것이 원적외선 찜질효과 때문이었던 것이다.

최근 허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허리조아 발열밸트**가 출시되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전기 없이 스스로 음이온 원적외선 파장으로 발열되는 **허리조아 발열밸트**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4가지 천연광물에서 나오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다량 방사 및 방출되는 제품이다.

허리가 편하면 만사가 편하다!

허리조아 발열밸트는 5가지 광물(겔라이트, 그라파이트, 토르말린, 칠보석, 의료자석 등) 중 그라파이트라는 신소재는 천연발열소재인 탄소분자를 고온에서 1000배이상 팽창시킨 물질이며 열전도성이 구리의 200배, 빛보다 30배, 활동에너지는 300배나 되며 허리부위를 전기없이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물질이며 불편한 허리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받혀 줄 것이다.
또한 가볍기 때문에 겉옷속에 차고 있으면 표시가 나지않게 착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일상생활 중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불편한 허리를 보호해주는~
상담문의: 허리조아
1670-5467